

팀 절친 덕에... 이정후, 슬럼프 극복 '큰 힘'

SF 외야 삼총사 우정 화기에 애 라모스·여스트렘스키와 막역 야구 집안에 외인선수 공통점 지난 시즌 부상 결장 때 친해져 이름 대신 애칭 '정이'로 불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오른쪽)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경기 1회 말에서 선발 투수 카일 프리랜드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친 뒤 윌리 아다메스와 포옹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최근 슬럼프를 겪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팀 동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 가며 분위기에 나서고 있다.

지역지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22일(한국시간)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유대감을 쌓아 가는 샌프란시스코 외야수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정후가 팀 동료 외야수 엘리엇 라모스·마이크 여스트렘스키와 남다른 인연을 이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샌프란시스코는 다양한 국적의 선수로 외야를 채우고 있다"며 "라모스는 푸에르토리코, 여스트렘스키는 폴란드와 이탈리아 이민자의 뿌리를 가졌고, 이정후는 일본 태생의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다양한 국적의 선수를 영입해 왔다"며 "팀의 기조를 이어 가는 세 외야수는 클럽 하우스에서 개인 로커를 붙여 쓰는 등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지난 시즌 부상으로 대부분의 경기에 결장한 이정후는 올해 팀 동료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라모스·여스트렘스키와는 절친한 관계로 발전했다.

여스트렘스키는 "우리는 함께 외식을 자주 한다"며 "경기에 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 팀에 맞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함께 고민한다"고 말했다. 언어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스트렘스키는 "이정후가 영어 공부

많이 한다"며 "(미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선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는 잘 어울린다. 우리가 하는 말을 거의 다 알아듣는다"고 전했다.

이정후는 동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여스트렘스키는 "이정후에게 여러 가지 한국어를 배웠는데 미디어를 통해 소개하기엔 적절치 않은 단어"라며 웃은 뒤 "서로에게 욕하고 놀리는 방법을 배우는 건 우리들의 본성인 것 같다"고 했다.

라모스와 여스트렘스키는 이정후에게 애칭도 지어 줬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여스트렘스키는 이정후를 정이(Jungie)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정후는 "라모스·여스트렘스키와 매우 친하다"며 "야구 이야기보다 농담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친해졌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세 선수가 보직, 외국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세 선수는 모두 야구 혈통을 가졌다.

이정후는 '바람의 아들'로 시대를 풍미한 이종범 kt wiz 코치의 아들이고, 라모스의 형은 2022년 KBO리그 kt wiz, 지난해 두산 베어스에서 뛰던 헨리 라모스다.

여스트렘스키의 조부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3308경기 출전해 452개의 홈런을 날린 칼 여스트렘스키다.

이정후는 올 시즌 74경기 출전해 타율 0.255(282타수 72안타) 6홈런, 34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34를 기록 중이다. 지난 달 초까지 3할대 타율을 유지하며 맹활약했으나 6월 이후 17경기에서 1할대 타율로 고전 중이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울산HD 선수들이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플루미넨시와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2-4로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 클럽 월드컵 부른 꿈 조별리그 탈락으로 마무리

K리그 팬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선전하겠다는 울산 HD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여정이 조별리그로 끝났다.

김판곤 감독이 지휘한 울산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브라질)에 2-4로 패하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김판곤 감독은 첫 경기에 앞서 이번 대회를 'K리그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장'으로 삼겠다고 출사표를 올렸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결과뿐 아니라 K리그를 대표해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선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내일 K리그 팬들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부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인터엔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와의 첫 판을 0-1로 진 울산은 F조 최강으로 꼽힌 플루미넨시에도 무릎을 꿇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탁구 임종훈·안재현, 佛 르브링 형제 꺾고 우승

WTT 류블라나 남자 복식 결승서 우승컵

한국 남자탁구의 환상 콤피인 임종훈-안재현(이상 한국거래소) 조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텐더 류블라나 2025에서 르브링 형제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임종훈-안재현 조는 22일 오전(이하 한

국시간)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프랑스의 펠릭스 르브링-알렉시스 르브링 조를 3-0(11-9 11-9 12-1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이로써 임종훈-안재현 조는 작년 10월

아스타나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선수로는 32년 만에 우승하고 올해 3월 WTT 스타 컨텐더 첸나이를 제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복식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4강에서 홍콩의 왕춘탕-첸발드윈 조를 풀게임 접전 끝에 3-2로 따돌리고 결승에 오른 임종훈-안재현 조는 질척 호흡을 자랑하는

르브링 형제를 만나 초반에는 고전했다. 하지만 임종훈이 안정적인 수비로 득점 기회를 만들면 안재현이 파워풀한 공격으로 점수를 쌓아 첫 게임을 공방 끝에 11-9로 가져와 기선을 잡았다. 원소 임종훈과 오른손 안재현의 환상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2게임도 11-9

로 따낸 임종훈-안재현 조는 듀스 접전을 펼친 3게임마저 12-10으로 승리하며 3-0 완승으로 우승을 완성했다.

임종훈은 지난주 WTT 컨텐더 스코피에서 파트너를 바꿔 같은 팀 후배 오준성과 호흡을 맞춰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도 제패해 최강복식 파트너임을 입증했다.

WTT 스타 컨텐더 류블라나 남자 복식 우승을 합작한 임종훈(왼쪽)과 안재현. WTT 인스타그램 캡처



LIM JONGHOON/AN JAEHYUN MEN'S DOUBLES

인한서 플러스

관절영양제의 혁명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